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6년 6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29(수) 오후 17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6. 29(수)	담당부서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
담당과장	이승렬 과장 (044-203-5140) 손호영 팀장 (044-203-5150)	담 당 자	김종연 사무관 (044-203-5159) 허은수 사무관 (044-203-5151)

해외자원개발, 부실은 걷어내고 역량은 강화한다!

-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수립 -

① 자원개발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
- **석유공사/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 정리**
-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단계적 축소**

② 공기업 추가 부실 예방을 위해 체질개선
- **자산 구조조정을 상시화하는 등 관리 시스템 강화**

③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 **정부·공기업의 동반지원으로 경쟁력 갖춘 민간 자원개발 기업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금일(6.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함

* 일시/장소 : '16.6.29(수) 15:00~17:00 / 한국기술센터, 위원장 : 산업부 장관

○ 위 대책을 통해 앞으로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의 경영 악화는 **'14년말 이후 자원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유 자산의 가치와 수익이 급감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 부족 등도 원인**

* 부채비율('14→'15) : 석유공사 221%→453%, 광물공사 219%→6,905%

○ 당분간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공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도 위축**될 우려

□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계기에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고자 함

○ 우선 **공기업들이 기존의 부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그리고 자원개발의 **또 다른 중심 축인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산업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위해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연구용역***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청회(5.2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 용역기관 : 딜로이트안진, 우드맥킨지 컨소시엄, 기간 : '15.12～'16.5

○ 또한,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6.14)**에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에 대한 **기본 방향을 확정**함

○ 위 기본방향 하에 **그간 검토내용과, 감사원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개선방안 주요 내용]

① 공기업 구조조정

□ 우선, 공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하도록 하겠음

○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 유치 및 경영 관리를 강화**하여 수익성과 가치를 높여 나가면서

- 앞으로 비축, 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고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

○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한편, 공기업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되, 매각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가급적 국내 기관·투자자에 우선 매각을 추진할 방침**임

② 공기업 체질개선

□ 공기업들이 상시적인 자산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향후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 체질을 개선**할 계획임

○ 공기업별로 보유자산에 대해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자산 처리방향을 결정**

- 또한, 보유자산은 관리 단위를 세분화하여 **비용과 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각 대상 자산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가치 극대화**

○ 그 밖에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하여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 동종기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등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투자사업 이력관리 철저, 자원개발 전문직위제 도입 등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음

③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 **정부·공기업 동반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 기업을 육성할 계획

○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지원**

○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 융자 사업과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일정에 따라 협의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민간, 학계, 연구계, 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하여

- **정책 수립,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

[향후계획 및 전망]

□ 정부는 상기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각 공기업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

□ 이번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자원개발 역량은 확대될 전망**

○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저유가로 인한 투자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규모도 '17년까지는 소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 **'18년 이후부터**는 국가 전체 자원개발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석유·가스 자원개발 물량 전망(천b/d) ('15) 557 → ('17) 534 → ('19) 590

○ 아울러,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점진적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금일 개최된 제14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주형환 장관(위원장)은

○ 지금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함

○ 또한,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며

- 이 과정을 충실히 보냄으로써 **자원개발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김종연 사무관(☎044-203-5159), 광물자원팀 허은수 사무관(☎044-203-51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도 내용은 에너지위원회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붙임1 **제14차 에너지위원회 회의 개요**

□ **일　　시 :** 2016. 6. 29(수) 15:00~17:00

□ **장　　소 :** 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장관님(위원장), 민간위원 등 16명

□ **회의안건**

○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 안건은 회의당일 현장에서 배포하고, 회의후 회수 예정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 진행 안내 및 참석위원 소개 (5′)	· 에너지자원정책과장
15:05～15:10	· 모두 말씀 (5′)	· 장관님
15:10～15:20	· 안건 보고 (10′) -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 보고 -에너지자원정책관
15:20～16:55	· 자유토론 (95′)	
16:55～17:00	· 마무리 말씀 (5′)	· 장관님

붙임2 **제14차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

□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4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금번 에너지위원회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함

□ 에너지 자원의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에너지자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에너지 안보문제는 국가의 핵심 아젠다임을 잘 알고 있음

70년대 중동 發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우리나라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음

* 우리나라 최초 자원개발 사업 : (석유・가스) 19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광물) 1977년 파라과이 산안토니오 우라늄 사업

* 석유・가스개발실적 : '08년 15.5만b/d (5.1%) → '15년 55.7만b/d (15.5%)

□ 최근 셰일가스로 대표되는 비전통자원의 개발 확대는 글로벌 에너지시장 구조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셰일가스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맞물려 자원가격 하락을 유발하였고, 중동리스크를 약화시키는 효과도 가져왔음

이에 선진국은 물론 중동 산유국들도 민자유치 확대와 신재생사업 강화와 같은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우리도 새로운 에너지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경제성을 감안한 보다 효율적인 자원개발전략을 추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는 자원가격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함

이에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기본 정책방향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음

□ 이번에 발표되는 정책의 기본방향은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하는 것임

무엇보다도 공기업들의 책임 하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그간에 누적된 부실을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 다음으로는 부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공기업들이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함

상시적인 자산 구조조정 시스템을 확립하고,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우리 민간 기업들이 자원개발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나 공기업이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공기업의 구조조정으로 국가의 자원개발 역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들의 참여 확대로 이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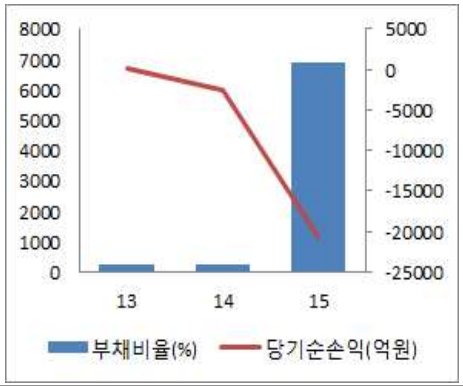
□ 저유가 시기인 지금이 오히려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일단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함

이러한 과정이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림

붙임3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요약

구 분	석유공사 KNOC	광물공사 KORES	가스공사 KOGAS
□ 재무현황			
□ 자구노력	▸ '18년까지 투자비 2.1조원 절감 ▸ 조직 23% 축소, 연봉 10% 반납 등	▸ '18년까지 투자비 0.4조원 절감 ▸ 조직 17% 축소, 해외사무소 5개 폐지, 임금 차등반납 등	▸ '18년까지 투자비 1.0조원 절감 ▸ 분당 사옥매각 등
□ 공기업 자산 구조조정	▸ 핵심자산위주 자산 재조정 ▸ 민간 부문과의 협력 강화	▸ 자원개발 단계적 축소 ▸ 민간지원 전문기관화	▸ 핵심자산위주 자산 재조정 ▸ 도입연계사업 중심
□ 공기업 체질 개선	▸ 자산 구조조정의 상시화 : 상시 평가 - 관리 - 매각 시스템 구축 ▸ 자회사 재무관리 강화 :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 → 해외 자회사에 확대 ▸ 인력 및 조직관리 개선 : 자회사 경영성과 평가, 책임사업부제, 전문직위제 도입 ▸ 주요 사업 중점 관리 강화		
□ 민간 투자 활성화	▸ 정부지원 확대,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 회의 신설 ▸ 공기업 민간지원 강화(해외 진출 지원, 상호기술 교류, 전문정보 및 컨설팅 제공)		
□ 이행체계 및 기대효과	▸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설치·운영 ▸ 유가스 자원개발 물량전망(천b/d) : ('15) 557 → ('17) 534 → ('19) 590		